

“울분 토할 힘도 없다” “편안히 떠나시오” 마지막 배웅



13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평병원 장례식장에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숨진 희생자의 발인식이 접수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시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동구청 광장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발인식

‘광주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지난 12일과 13일 병원과 장례식장 등 곳곳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의 안타까움 속에 진행됐다.

참사 발생 나흘째인 지난 12일 오전 6시 10분 조선평병원 장례식장에서는 A(여·30)씨의 발인식이 접수됐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버스에 탔다 변을 당했다. 당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어머니 병문안을 가는 길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하지만 이날 아버지는 딸의 발인식을 지켜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사고 여파로 큰 부상을 입고 광주 기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유족들은 이날까지도 딸의 사망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했다.

발인 시각이 되자, 환하게 웃는 A씨의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유족 20여명이 뒤따랐다. 발인 행렬

희생자 9명 중 7명 접수...시민·정치권 등 추모 발길 이어져 분향소 찾은 유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광주에 위로 전해”

이 시작되자 멈춰선 유가족들의 눈물이 다시금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숙연한 가운데 옷소매로 눈가를 닦고 숨죽여 흐느끼며 A씨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A씨의 작은아버지는 “그날, 그 시각 형과 조카가 하필 왜 거길 갔을까 참담한 심정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맞은 것 같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건물이 무너져 아무 대책도 없이 지나가는 버스를 덮쳤더니, 말도 안되는 일이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게 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또래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준 뒤, 운임 54번 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B(여·72)씨의 발인식은 13

일 오전 8시 30분 광주시 북구 구호전장장례식장에서 접수됐다.

B씨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레 품에 안은 손자와 그 뒤로 위패를 든 몇몇 또다른 손자 유족들이 B씨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벌써 참사 발생 5일, 유가족들은 더 이상 울분을 토해낼 힘마저 떨어진 듯 떠나는 B씨의 마지막 모습을 황망하게 쳐다 볼 뿐이었다.

운구행렬 사이에서 누군가 넋지시 꺼낸 “편안히 떠나시오”라는 말을 끝으로 B씨를 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났다.

이날까지 참사 희생자 9명 가운데 7명의 발인식이 접수된 가운데, 14일 다른 2명의 발인식이 접수될 예정이다.

희생자들을 향한 일반 시민들의 추모 행렬도 참사 발생 닷새동안 이어지고 있다.

동구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시민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추모 발길이 잇따랐다. 조문객들은 희생자들과 일면식조차 없지만 안타까움에 눈물을 보이는 가하면 직접 구매된 국화를 헌화하기도 했다.

정지원(여·28·광주시 동구 학동)씨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눈물이 났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림(18)·예지(17) 자매는 꽃집에 들러 직접 구매한 국화를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올렸다. 김예지 양은 “저와 동갑인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1일 오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뜻을 전했다.

유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말씀 하셨다”며 “무엇보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슬픔에 빠진 가족과 광주 시민 모든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법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국내 공공 형사 정책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등 각계 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13일 오후 7시까지 2864명의 조문객이 광주 동구청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허망한 죽음을 추모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민·미술인 참여 ‘아트 페스티벌’ 연다

광주 북구-시립미술관, 16~20일 비엔날레 전시실

광주시 북구는 광주시립미술관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관 전시실에서 ‘2021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에는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70명과 지역 작가 44명 등이 참여한다.

전시 작품으로는 서예, 캘리그래피 등 주민 작품 80여 점과 사진, 조각, 판화 등 지역 작가 작품 및 금붕어미술관 소장품 100여 점 그리고 소품, 도자기 등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프로그램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대해 ‘알록달록 나만의 북구 8경’ 엽서 만들기 등 쉽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체험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등교수업 앞둔 직업계고 13곳 특별방역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청이 14일 직업계고 전면 등교수업 확대를 앞두고 지역 직업계고 13곳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특별방역은 직업계고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14일 등교 전 대상 학교시설 전체 및 여름방학 전까지 전문교과 수업이 이뤄지는 실험·실습실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방역은 광주지역 공·사립 직업계고 13곳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 U·L·V

미립자살균 살포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자재 활용 빈도가 높고 밀링·선반·용접기 등 주로 1인당 1개의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실의 안전대책을 강화해 집중 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면 등교수업을 앞두고 직업계고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및 실험실 중심 방역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방역체계를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임창용 前 선수 약식기소 1500만원 안 값은 혐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말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현대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우리동네 sMile aGain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 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혜 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접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내 용 MG체크카드 이용자

신 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